



# “어떤 빨대를 꽂아도 액체 안 흘러… 컵 세척도 간편”

아이들은 이유식을 하면서 물을 본격적으로 마시기 시작한다. 컵에 입을 대고 물을 삼키는 힘이 부족해 빨대컵을 사용해 물을 빨아들이는 훈련을 한다. 하지만 시중에 나와 있는 유아용 빨대컵은 아기가 거꾸로 잡으면 빨대 사이로 물이 새곤 한다. 전용 빨대만 사용해야 돼 매년 세척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적지 않다.

유아용품 제조업체 아가프라(대표 김중석)가 내놓은 '매직빨대컵'은 이런 불편함을 없앤 제품이다. 빨대 꽂는 부분을 이중으로 실리콘 처리해 누수가 발생하지 않는다. 다양한 굵기의 일회용 빨대를 꽂아도 된다.

### ◆새지 않고 세척 간편 빨대컵

심자 형태로 생긴 매직빨대컵의 누수방지 실리콘 이중패킹은 특허 출원한 아가프라만의 기술이다. 마트에서 무료로 나눠주는 요구르트용 얇은 빨대부터 탄산음료용 굵은 빨대까지 어떤 종류의 빨대를 꽂더라도 액체가 새지 않는다. 빨대를 꽂은 주변 부위의 음료 누수까지 차단했다. 유아가 컵을 거꾸로 들거나 흔들어도 안전하다. 가방에 넣고 다녀도 액체가 흐르지 않는다.

패킹은 분리형으로 제작돼 세척이 간편하다. 디자인에도 신경 썼다. 유아용 컵 손잡이 형태로 아기가 손에 알맞은 구조다. 아기가 스

스로 잡기 편한 디자인이다. 아기의 월령(月齡)과 발달 상황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빨대컵 종류를 세 가지로 나눴다.

개발에 1년 정도 걸렸다. 금형기계에만 1억2000만원을 투자했다. 김중석 대표는 “출시 3개월 만에 2000여개가 판매되는 등 소비자들의 반응이 좋다”며 “가격은 1만 6000원으로 해외 브랜드 제품보다 30% 이상 저렴하다”고 말했다. 오픈마켓과 소셜커머스, 아가프라 온라인몰 등에서 제품을 판매하고 있다.

### 석달 만에 2000여개 판매 해외 브랜드보다 30% 저렴 싱가포르·호주 등 진출 계획

◆다양한 아이디어 상품 출시 아가프라는 김 대표가 2006년 설립한 회사다. 일본 유아용품 업체로부터 제품을 수입해 팔았다. 그는 “엄마들이 선호하는 유아용품은 대부분 해외 브랜드 제품으로 국내에서 제대로 유아용품을 만드는 업체가 거의 없었다”며 “좋은 제품에 ‘내 브랜드’를 달아 내놓고 싶었다”고 설명했다. 대학에서 산업디자인을 전공한 뒤 반도체 포스트 디자인실에서 근무하던 경험도 한몫했다.



김중석 아가프라 대표가 누수방지 기능을 설명하기 위해 매직빨대컵을 거꾸로 들어보이고 있다. 화성=김정은 기자

유산균 음료 전용컵 ‘스윗팜’, 치아발육기와 팔랑이가 합쳐진 공 형태의 완구 ‘캡틴볼’, 손잡이가 바나나 모양인 실리콘 ‘과즙망’, 손가락을 빼는 아이의 습관을 교정하기 위한 ‘닥터핑거’, 바나나 모양의 ‘바나나 치발기’ 등 아이디어가 돋보이는 유아용품을 꾸준히 선보였다. ◆싱가포르 등 수출 집중 이 회사는 매년 연구개발(R&D)에만 3억원가량을 투자한다. 중소기업으로서 쉽지 않은 일이다. 해

외 업체들의 제품 트렌드를 알기 위해 매년 5~6차례 국제 유아박람회를 찾는다. 최근에는 수출에 주력하고 있다. ‘국내에서 통하면 해외에서도 잘 팔리게 돼 있다’는 게 김 대표의 생각이다. 싱가포르를 비롯해 호주, 러시아 기업들과 수출을 협의 중이다. 김 대표는 “아가프라를 영국의 아벤트 같은 세계적인 유아용품 업체로 키우고 싶다”고 말했다. 화성=김정은 기자 likesmile@hankyung.com

◆‘아이달의 으뜸중기 제품’은 이메일(art@hankyung.com)로 신청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신문 홈페이지(event.hankyung.com)를 참조하세요. ◆아이달의 으뜸중기 제품 △아가프라-매직빨대컵 (031)234-9753 △해울-LED 스마트 지팡이 (063)851-8652 △성창산업-황토세라믹 볼판 (055)298-0574 △주니컴-미니드론 (031)259-6266

암	OECD 평균	한국	영국	미국
자궁경부암	66	77.8	59.5	61.8
유방암	84.9	85.9	81.1	88.9
대장암	62.2	70.9	56.1	64.2

\*비교기간은 2008-2013년 자료:OECD

## 대장암·자궁암 치료성과 한국, OECD 최고 수준

### 5년 생존율 10%p 높아 만성질환 관리의 부진

국내 대장암, 자궁경부암, 뇌졸중 치료 성과가 세계 최고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당뇨, 천식 등의 만성질환 관리 수준은 다소 낮았다.

4일(현지시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발표한 회원국별 보건 의료 성과에 따르면 한국의 대장암 5년 상대생존율은 77.8%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았다. 5년 상대생존율은 같은 연령대의 일반인과 암 환자의 5년 생존율을 비교한 것이다. 상대생존율이 100%라면 일반인의 생존율과 동일하다는 의미다.

유방암은 5년 상대생존율이 85.9%로 OECD 평균(84.9%) 수준이었지만 2011년 82.2%와 비교하면 생존율이 높아졌다. 주요 사망원인 중 하나인 뇌졸중 급성심근경색증 진료 성적도 개선됐다. 45세 이상 허혈성 뇌졸중(뇌에 혈액 공급이 갑자기 줄어 기능에 문제가 생기는 질환) 입

원환자 중 30일 안에 사망한 환자 비율은 3.2%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우수한 수준이었다. 급성심근경색증 환자 중 30일 안에 사망한 환자 비율도 8.3%로, 2011년(10.4%)보다 줄었다.

그러나 만성질환 관리 성적은 좋지 않았다. 천식과 만성 폐쇄성폐질환 환자 중 입원 환자 비율은 인구 10만명당 310.6명으로 OECD 회원국 평균(242.2명)보다 높았다. 일본(58.1명)과 비교해 5배 이상 차이가 났다. 당뇨환자 입원율도 인구 10만명당 310.7명으로, OECD 회원국 평균(149.8명)의 두 배였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관계자는 “천식 만성폐쇄성폐질환 당뇨 입원율이 높다는 것은 1차 의료 환경에서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질병이 악화되거나 입원 병상이 비효율적으로 활용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OECD는 회원국의 보건 의료 성과지표를 수집·비교분석해 ‘보건 의료 질 지표’를 발표하고 있다. 이현희 기자 bluesky@hankyung.com

## 서울바이오시스, 글로벌 수자원 처리사업 진출

### 우주정거장 살균기술 이용 청정수 공급시스템 개발

서울반도체의 자회사인 서울바이오시스가 우주정거장에 사용된 자외선 살균기술을 이용해 글로벌 수자원 처리사업에 진출한다. 자외선 발광 다이오드(UV LED)전문 업체인 서울바이오시스는 스웨덴 수(水)처리업체 워터스프린트와 청정수 공급시스템(사진)을 공동 개발했다고 5일 발표했다. 이 시스템에는 서울바이오시스의 대표적인 오염물질분해



기술 바이올레드(Violeeds)가 적용됐다. 이 기술은 우주정거장의 살균시스템에 쓰인다. 바이러스와 박테리아를 99.9% 이상 제거할 수 있고 수온이나 다른 화학약품 사용하지 않아 환경오염이 없다. 초소형 모듈 형태로 제공되기 때문에 산업, 상업용 시설뿐만 아니라

일반 가정에도 손쉽게 적용 가능하다. 워터스프린트는 와이파이(Wi-Fi)를 이용해 식수 살균상황을 24시간 모니터링한다. 앤더슨 플랜트 워터스프린트 대표는 “세계적인 UV 살균 기술을 보유한 서울바이오시스와 함께 수질 오염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국가에 청정수를 공급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두 회사가 공동으로 개발한 시스템은 방글라데시 유누스센터를 통해 방글라데시 국민에게 공급된다. 이시주 기자 onething@hankyung.com

## “창업에 대한 좋지 않은 인식 바꿀 것”

### 한정화 중소기업청장

“창업을 결혼 전에 했습니까, 아니면 결혼하고 창업했습니까?” 한정화 중소기업청장(사진)이 창업에 성공한 기업인을 만나면 꼭 던지는 질문이다. 5일 기자간담회에서 한 청장은 그 이유에 대해 “결혼하고 나면 아무리 좋은 사업아이디어가 있어도 직장을 그만두고 창업하는 건 무척 어려운 일”이라며 “어떻게 부인의 반대를 극복했는지 듣고 싶어 질문한다”고

설명했다. 벤처 전문가인 한 청장은 창업에 대한 좋지 않은 사회적 인식을 극복해야 한다고 했다. “창업했다 실패하면 전 재산을 잃고 신용불량자가 됐기 때문에 창업에 대한 좋지 않은 인식이 생겼다”는 게 그의 진단이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창업자 연대보증 폐지, 실패한 창업자 부채감감 확대, 세금 감면 등도 창업에 대한 인식 변화를 위한 한 청장의 노력이 반영된 결과다. 김용준 기자 junyk@hankyung.com

### 쌍용양회 공동 대표 윤재민



쌍용양회는 5일 임시 이사회를 열고 윤재민 전 부사장(사진)을 이사회 의장 겸 공동 대표 이사 사장으로 선임했다. 윤 신임 사장은 1978년 산업은행에 입사한 뒤 자금거래실장과 트레이딩센터장, 여신심사센터장 등을 거쳤다. 2012년부터 지난 3월까지 쌍용양회 부사장을 지냈다. 김용준 기자 likesmile@hankyung.com

### 공영효쇼핑 매출 1000억 돌파

중소기업 제품과 국내 농산물을 주로 파는 공영효쇼핑은 지난 8월 6일 중소기업 해피리안의 아이디어 상품 누보백을 방송을 통해 판매했다. 반응이 좋아 9월14일 다시 제품을 방송에 내보냈다. 이날도 매진이었다. 7월14일 문을 연 공영효쇼핑은 10월 말까지 석 달 반 만에 누적 주문액 1000억원을 돌파했다고 5일 발표했다. 히트상품이 나오고, 가입자가 120만명을 넘어서는 등 소비자에게 많이 알려진 덕분이다. 김용준 기자 junyk@hankyung.com

## 부동산 실무전문가 박관식대표의 특별세미나

# 평택! 부동산시장의 전망과 토지 투자전략!

미군기지 이전과 고덕국제신도시 개발, 삼성전자 산업단지 개설과 LG전자 산업단지 이전계획 등 개발호재가 넘치고 매력적인 투자처로 떠오르고 있는 평택. 평택 부동산시장의 분석과 투자는 어떻게 할 것인가!

**미래가치가 높고 성공투자가 기대되는 개발지 평택에서 숨은 1%의 노른자위를 찾아라!**

**행복한 부동산 강의와 상담이 함께하는 [박관식 전문가의 방송 안내]**

▶ WOW 한국경제TV '부동산핫라인' 생방송 출연중!! (매주 일요일 저녁7시(본방) / 밤12시(재방))

**무료 특강 일시 및 장소**

<b>서울</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일시: 11월 9일(월)/오후 2시~5시</li> <li>장소: 여의도 사학연금 빌딩 2층 강당(5,9호선 여의도역 2번 출구)</li> </ul>
<b>대전</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일시: 11월 11일(수) / 오후 2시~5시</li> <li>장소: 대전 오페라웨딩홀 본관 2층 라임홀(대전시청 후문 앞)</li> </ul>
<b>창원</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일시: 11월 17일(화) / 오후 2시~5시</li> <li>장소: 창원컨벤션센터 601,602호 (다시터세븐 편의점 바로 옆)</li> </ul>
<b>광주</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일시: 11월 24일(화) / 오후 2시~5시</li> <li>장소: 광주 갈매동컨벤션센터 211~213호 (광주서 서구 치평동 1159-2)</li> </ul>

\* 당일 혼잡할 수 있으니 사전접수 바랍니다

**(ORC) 원부동산자문상담소**      부동산세미나 문의 : 02)595-4236, 4237